

# ‘新北京’과 《駱駝祥子》의 현재적 의미에 대한 試論

— 農民工문제를 중심으로 —

金 璟 碩\*

## <目 次>

I. 서론	2. 新北京의 祥子들
II. 본론	3. 京味の 裏面
1. 三農問題와 도시화	III. 결론

## I. 서론

中國特色的社會主義建設!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오늘날까지 중국공산당 정부는 현대중국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의 길을 가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sup>1)</sup> 이는 중국공산당의 지향점은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있되, 과거와는 다른 중국만의 고유한 모델을 선택적으로 취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1세기에 들어서 소위 ‘소프트파워’를 중시하는 세계전략은 중국의 사회주의건설의 모델을 통해 전 지구적이고 문명사적인 보편성을 획득하겠다는 야심을 드러

\*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중국어학과 부교수

1) 1978년 열린 11기 3중전회는 현재 중국의 모습을 결정한, 중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기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회의에서 덩샤오핑이 중국 권력의 전면에 등장하고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다. 이어서 1984년 12기 3중전회는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경제개혁을 농촌에서 도시로 확대한다. 1993년 14기 3중전회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공식화하고 국유기업의 개념을 도입했으며 2003년의 16기 3중전회에서는 헌법상 사유재산을 공식화하였다.

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 중국의 성장 일변도의 변화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그다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우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것은 단지 ‘중국특색의 자본주의’를 포장하고 있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다. 물론 중국의 성장이 결국 사회주의로 갈 것인지, 자본주의로 갈 것인지는 보다 긴 역사적 검증의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중국공산당이 ‘중국특색’이라는 수식어를 걸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었다. 1921년 중국공산당이 창당된 이후, 1930년대 초반까지 臨東 지역의 도시를 거점으로 삼으려는 노동자파업투쟁이 번번이 실패로 끝나면서 공산당세력이 위축되자 마오쩌둥은 王明노선을 비판하면서 ‘중국의 역사적 현실에 맞는 혁명의 길’을 역설하게 된다. 바로 그것은 여전히 중국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이 중심이 되는 혁명노선이었으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혁명은 이 당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마오쩌둥이 1927년에 호남농민운동을 조사한 후 작성한 <호남농민운동 고찰보고(湖南農民運動考察報告)>는 그가 당 내부의 권력투쟁에서 농민대중운동에 기반을 둔 공산주의로 노선을 잡고 우위를 점하는 데 방향을 제시했던 문헌으로 유명하다.<sup>2)</sup>

그렇다면 형식적이거나 오늘날까지 프롤레타리아 專政이 유지되는 중국, 결국 농민과 노동자정권임을 표방하는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은 농민과 빈민의 문제는 해결되고 있는 것일까. 1921년 1월, 북경에서 문학연구회가 창립되고 이들은 리얼리즘 문학을 표방하였다. 주지된 바와 같이 문학연구회의 작가들이 리얼리즘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인생파문학은 중국민중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들을 깨우치고자 했던 것이었다. 인생파 작가들 역시 마오쩌둥과 마찬가지로 중국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농민의 삶을 개혁하는 것이 곧 중국을 근대국가로 변화시키는 관건이

2) 친구이다·우춘타오, 박영철 역, 《중국농민르포》, 도서출판 길, 2014, p.12.

라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문학연구회의 인생과 작가들은 곧바로 농민문제에 천착하여 20년대 중국문단에 리얼리즘 향토소설을 형성하게 되었다.

30년대 이후 중국에 근대적 도시가 형성되던 시기, 군벌과 제국주의의 침탈로 피폐해진 농민은 도시로 유입되기 시작한다. 도시 또한 이들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시로 유입된 농민들은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게 되고 이들의 삶을 창작에 반영하는 작가군도 출현하게 된다. 중국현대문학사에 있어서 라오서의 《駱駝祥子》는 ‘농민은 도시로 간 후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보고문학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駱駝祥子》는 라오서의 대표작품으로 본 소설이 발표<sup>3)</sup>된 이후 많은 중국현대문학 연구자들은 이 소설의 문학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에 천착해 왔다. 물론 《駱駝祥子》에 반영된 현실비판적 성격은 근대도시로 변모해가는 북경의 하층민들의 삶을 최초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라오서에게 주어진 ‘북경문화를 가장 훌륭하게 묘사하는 작가(描寫北京文化的能手)’라는 찬사 속에 그의 작품이 지니는 현실비판적 요소들은 ‘문화’라는 이미지 속에 가려지는 경향을 나타내곤 하였다. 그러므로 기존의 《駱駝祥子》에 대한 연구의 시각은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뉘어 진다.

첫째, 북경 하층시민생활의 묘사에 대한 리얼리즘적 관점의 연구.

둘째, 북경문화와 거리에 대한 기록물로서 문화적 가치에 대한 검증적 연구.

3) 라오서가 산둥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36년 봄, 동료교수로부터 북경의 인력거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 인력거꾼은 자신의 인력거를 장만할 세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인력거꾼은 군벌에게 끌려갔다가 駱駝를 세 마리 훔쳐가지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라오서는 이 이야기들을 합하여 소설로 쓸 것을 구상한다. 1936년 산둥대학의 교수직을 사직하고 전업 작가의 길에 들어선 라오서는 여름에 《駱駝祥子》를 탈고한다. 《駱駝祥子》는 그 해 9월부터 1937년 10월까지 《宇宙風》에 연재되었고, 1939년 3월 上海人間書屋에서 단행본으로 초판이 출판되었다.(張桂興, 《老舍年譜》, 上海文藝出版社, 1997년)

〈駱駝祥子〉 외에 〈老張的哲學〉, 〈趙子曰〉, 〈二馬〉 등 라오서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현실비판적 성격을 조명하는 동시에 문화적 가치에 주목해 왔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라오서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문화’라는 화두에 주목하고 있다.<sup>4)</sup> 이러한 현상은 문화대혁명 기간 중 나타났던 문예계의 사회주의적 교조주의를 탈피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작품을 조명해보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駱駝祥子〉를 통해 북경의 문화를 기록하고 전하고자 했던 것이 라오서의 창작의도였다고 한다면 이 또한 편협한 시각이 될 것이다. 라오서가 〈駱駝祥子〉를 통해 문화적 가치 이전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북경으로 유입된 農民工 祥子の 인생여정에 대한 것이었다.

책속에서 나는 비록 노동인민을 동정하고, 그들의 미덕에 대해 존경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들에게 출로를 찾아주지 못했다. (작품 속에서 단지 그들은 고통스럽게 살아가다 억울하게 죽어갔다. 이것은 내가 단지 당시 사회의 어두운 일면만 보았을 뿐, 혁명의 광명을 볼 줄 몰랐고, 혁명의 진리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sup>5)</sup>

상술한 라오서의 평가는 1955년 1월 인민문학출판사에서 출판된 〈駱駝祥子〉 수정본에 실린 것이다. 물론 이 당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마오쩌둥 숭배의 교조주의적 폐단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많은 작가들이 1949년 이전 자신의 창작에 대해 정치적인 자기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라오서 역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을 것이며 〈駱駝祥

4) 《老舍小說新論》(王潤華, 學林出版社, 1995年), 《老舍與二十世紀》(關紀新 主編, 天津人民出版社, 2000年), 《老舍研究論文集》(李潤新 主編, 人民文學出版社, 2000年) 등 90년대 이후 출간된 라오서 연구의 대표저작들을 보면 대체로 라오서 작품의 현실비판적 가치보다는 문화적 가치를 다루고 있다.

5) 〈駱駝祥子·後記〉, 《老舍文集》 제16권, p369: “在書里, 雖然我同情勞苦人民, 敬愛他們的好品質, 我可是沒有給他們找到出路; 他們痛苦地活着, 委屈地死去. 這是因爲我只看見了當時社會的黑暗的一面, 而沒看到革命的光明, 不認識革命的真理.”

子)에 대한 사족과 같은 정치적인 변명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서문이 《駱駝祥子》에 대한 정치적인 자기변명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이는 《駱駝祥子》의 사회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문장일 것이다. 더욱이 21세기 중국의 대도시에서 심화되고 있는 農民工문제를 본다면 《駱駝祥子》의 현실비판적 가치를 현재적 의미에서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21세기 ‘新北京’과 進城農民으로서 祥子형상에 내포된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三農問題와 도시화

매년 중국공산당과 국무원 공동명의로 발표되는 ‘중양 1호 문건’ 그해 중국정부의 국정추진 방향과 중점과제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관심 속에 발표된 2014년의 1호 문건 주제는 지난해에 이어 三農(농업·농촌·농민)問題였다.<sup>6)</sup> 三農問題를 주제로 당과 정부가 공동 명의의 1호 문건을 하달한 것은 이미 2004년 이후 11년째다. 공교롭게도 2004년은 《中國農民調查》가 출판된 해이기도 하다.<sup>7)</sup> 실제로 《中國農民調查》의 출판은 중국정부의 三農問題에 대한

- 6) 2014년 ‘중양 1호 문건’은 ‘농촌개혁의 심화와 농업현대화 추진 가속화’라는 핵심 기조 아래 식량안보체계 완비, 농업지원·보호제도 강화,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체계 구축, 토지제도개혁 심화, 신행 농업경영체계 확립, 농촌금융제도 혁신 가속화, 동농통합발전체계 구축, 농촌 거버넌스 메커니즘 개선 등 8가지 농정 추진 방향과 33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7) 《中國農民調查》의 작가 천구이디(陳桂棣, 72)는 중국 국가1급 작가로서 그의 아내 우춘타오(吳春桃, 51)와 2004년 《中國農民調查》를 출판한다. 본서는 9억에 달하는 중국농민들의 비참한 실상을 현지 르포와 전문가 및 관리들 취재를 통해 파헤치고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출판되자마

관심과 개혁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례가 없는 일로서 三農問題에 대한 공산당의 관심은 공산당의 태생적 지지기반에 대한 본원적인 회의에 직면할 만큼 三農問題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 일면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 청제국의 해체 이후 오늘날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이 걷고 있는 사회주의의 길에서 낙오하는 계층은 여전히 과거 중국공산당의 존립기반이었던 농민들이라는, 공산당 정부조차도 부인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2014년의 문건의 내용을 본다면 식량안보, 도농통합발전, 농민재산권제도와 관련된 개혁 추진과제들이 제시된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가운데 도농통합발전과 관련한 정책들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도농격차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고민을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은 낙후된 농촌에 대해 도시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도시로 유출된 많은 농촌노동력이 호적제도 때문에 도시주민이 되지 못하고 도시생활의 각종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적제도 개혁과 연계해 농촌으로부터 유출된 農民工들이 도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거주하는 농민들을 시민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민경제의 파탄에 따른 이농현상, 즉 農民進城현상의 심화를 막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農民進城현상을 당장 가시적으로 둔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도시경제를 부양하고 팽창시켜나가는데 있어 農民工들의 값싼 노동력은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

---

자 판금조치되었고 언론에서조차 다룰 수 없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해적판을 통해 1천만권 이상이 팔려나갔고 해외의 유력언론들도 이를 보도하였다. 《中國農民調查》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개혁개방 이후 10년간 중국의 '삼농'문제를 통해 중국사회의 부패와 모순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다. 천구이디는 〈중국농민조사〉로 2004년 독일에서 레트레 율리시스상(Lettere Ulysses Award)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중국농민르포》(도서출판 길, 2014)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었다.

이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의 도시발전에 값싼 노동력만 착취당한 후 결국 도시빈민으로 전락하여 사회복지와 치안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되고 북경의 권력화된 시민, 즉 ‘老北京人’들은 農民工들을 멸시와 착취의 대상으로 여길 뿐이다. 農民工들이 생계를 의지해야 하는 일자리의 고용주들은 農民工들이 시민사회에 편입하는 것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장벽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1930년대 라오서의 《駱駝祥子》 가운데 예견된 근대도시 북경의 생태계인 것이다.

## 2. 新北京의 ‘祥子’들

《駱駝祥子》, 《老張的哲學》, 《趙子曰》, 《二馬》 등 2,30년대 라오서의 소설 가운데는 전통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老派市民과 서구화된 新派市民이 등장한다. 그러나 라오서가 주목한 시민형상은 도시빈민에 속하는 下層市民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층시민사회에 대한 묘사는 그의 소설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라오서의 소설 속에서 하층시민은 老派市民이나 新派市民으로 분류할 수 없는, 사실상 토박이 북경시민(地道北京市民)이 아니며 외지로부터 유입된 몰락한 농민들이 대부분이다. 라오서가 시민형상을 老派市民과 新派市民으로 분류하여 묘사한 작품은 대체로 희극적인 요소를 띄고<sup>8)</sup> 있으나, 下層市民형상을 묘사한 작품은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駱駝祥子》에서도 많은 하층시민의 형상이 등장하는데, 이들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라오서와 하층시민과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駱駝祥子》는 인력거꾼을, 《月牙兒》는 창녀를, 《上任》은 강도를 《斷魂槍》은 무술사범을 다루고 있다. 본래 나 자신이 가난한 집안출신이라 하층민에 대해 깊은 동정을 가지고 있었다. 나의 직업(교사)은 항상 나를 지식

8) 대체로 《老張的哲學》, 《趙子曰》, 《文博士》, 《老字號》 등과 같은 작품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인들 사이에서 맴돌게 하였지만, 내 친구들은 결코 교수나 학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무술인, 소리꾼, 인력거꾼 등도 모두 나의 친구이었다. 하층민들과의 교류에 있어서, 나는 단지 그들과 찻집에서 한담이나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몰래 그들의 행동과 대화내용을 수첩에 기록하였다.<sup>9)</sup>

이처럼 라오서가 그의 작품에서 ‘도시’와 ‘하층시민’을 소재로 선택한 것이 일종의 ‘익숙함’과 ‘친숙함’에 기초한 것인데, 이를 통해 라오서가 묘사하고자 한 것은 북경의 거리풍경이나 문화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도시문명 속에 착종된 인간의 선악과 고통에 대한 것이었고 이러한 창작의도가 가장 충실하게 반영된 작품이 바로 〈駱駝祥子〉인 것이다.

祥子が 일하는 인력거 회사 人和인력거회사는 북경하층민들의 생계의 일면을 보여준다. 도시는 이들의 노동력을 밀거름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결코 성장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 인력거회사의 주인 劉四와 그의 딸 虎妞는 인력거꾼들을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며 착취와 감시의 대상으로만 여긴다. 劉씨 부녀는 근대도시 북경이 상징자본으로서 권력화 되어가는 과정에 출현한 자본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만, 그들도 회사의 다른 인력거꾼에 비해 祥子が 지니고 있는 ‘촌놈의 강건함과 성실함’을 알고 있다.

그래서 더욱 이 키다리 멍청이를 좋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녀가 하는 말이면 祥子は 귀 기울여 들었으며 그녀에게 따지지도 않았다. 다른 인력거꾼들은 힘든 삶에 시달린 탓에 늘 말하는 것이 빠팍했다. 그녀는 오히려 그들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고 그들에게 간섭하고 싶지도 않았다. 祥子만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祥子が 회사를 나간다고 했을 때, 유씨 부녀

9) 〈老舍選集·自序〉, 《老舍文集》 제16권, p.220: “論內容, 這五篇作品中, 倒有四篇是講到所謂江湖上的事的: 〈駱駝祥子〉是講洋車夫的, 〈月牙兒〉是講暗娼的, 〈上任〉是講強盜的, 〈斷魂槍〉是講拳師的. 我自己是寒苦出身, 所以對苦人有很深的同情. 我的職業雖使我老在知識分子的圈子里轉, 可是我的朋友并不都是教授與學者. 打拳的, 賣唱的, 洋車夫, 也是我的朋友. 與苦人們來往, 我并不只和他們坐坐茶館, 偷偷的把他們的動作與談論用小本兒記下來.”

는 마치 친구를 잃은 듯이 섭섭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유씨 영감은 욕을 하면서도 매우 기뻐했었다.<sup>10)</sup>

祥子は 독신으로 생활하면서 인력거를 장만할 일념만 가지고 술과 여자를 멀리한다. 《駱駝祥子》 가운데 라오서는 祥子の 출생이나 어린 시절에 대해 묘사하고 있지 않다. 그의 고향이 어디인지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라오서는 소설의 곳곳에서 祥子は 북경인이 아니며 祥子が 어느 농촌의 몰락한 농민임을 짐작할 수 있는 서술을 엿보이고 있다. 그의 인력거에 대한 집착도 결국은 도시에서 돈을 번 후 귀향하여 가정을 이루고 농사를 짓기 위한 과정임을 알 수 있다.

그가 고향을 떠난 이후, 비록 줄곧 결혼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음 속에 결혼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만약에 자기 인력거가 생기고 생활이 좀 넉넉해지면, 그리고 장가갈 생각이 든다면, 그는 분명히 시골에 가서 나이 어리고 튼튼하여 어떠한 고생도 감당해 낼 수 있는 밥 잘하고 일 잘하는 처녀를 얻었을 것이다.<sup>11)</sup>

이처럼 祥子の 꿈은 전통적이고 소박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祥子は 자신의 결혼관과는 전혀 다른 여자 虎妞와 강제로 결혼하게 된다. 인력거 회사 주인 劉四爺의 딸 虎妞는 祥子を 좋아한다. 祥子は 비록 그녀를 혐오하지만 그녀의 계획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룻밤 동침한 후 그녀의 거짓 임신에 속아 결혼하게 된 것이다. 祥

10) 《駱駝祥子》, 《老舍文集》 제3권, p.37: “更喜歡這個傻大個兒, 她說什麼, 祥子老用心聽着, 不和她爭辯; 別的車夫, 因為受盡苦楚, 說和總是橫着來; 她一點不怕他們, 可是也不願多搭理他們; 她的話, 所以, 都留給祥子聽. 當祥子去拉包月的時候, 劉家父女都彷彿失去一個朋友. 趕到他一回來, 連老頭子罵人也似乎更痛快而慈善一些..”

11) 《駱駝祥子》, 《老舍文集》 제3권, p.54: “他來自鄉間, 雖然一向沒有想到娶親的事, 可是心中并非沒有個算計; 假若他有了自己的車, 生活舒服了一些, 而且願意娶親的話, 他必定到鄉下娶個年輕力壯, 吃得苦, 能洗能作的姑娘.”

子は 어쩔 수 없이 그녀와 결혼하며 그녀를 받아들인 이유로 자식이 없으면 죽은 후 부모를 볼 면목이 없음을 내세운다. 그래서 虎妞가 임신했을 때, 祥子は 정성으로 그녀를 돌본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봉건적인 가족관념 앞에서 祥子は 인력거를 잠시 잇는다. 결국 祥子の 젊음과 이상은 도시의 물욕의 화신인 虎妞의 욕망에 희생물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도시의 생태는 祥子の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운명을 규정해 나가고 있다.

祥子は 인력거를 소유함으로써 Beijing Dream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지만 군벌에게 인력거를 빼앗긴 이후, 수 차례 좌절을 겪으면서도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구체적인 방법이나 능력은 없다. 또한 자신에게 波狀적으로 다가오는 불행의 원인을 깨닫지도 못하고 다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본능적인 집념으로 맞서나갈 뿐이다.

이처럼 협의적 의미에서 볼 때 〈駱駝祥子〉는 農民工 祥子の 개인사를 다루고 있다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작품은 1930년대 북경이 가지고 있던 도시문명의 야만성과 그 병폐의 본질을 폭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은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순박한 농민이 도시문명과 만나는 교차점에서 융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교차점은 인간성의 파괴와 야만성의 증폭이라는 결과를 야기함을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농민과 도시문명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駱駝祥子〉이후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문예작품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sup>12)</sup>

祥子は 1930년대 군벌정권의 전횡 속에 몰락한 농촌에서 북경으로 유입된 농민이다. 물론 소설에서 그가 북경으로 오게 된 내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그러나 소설의 전개과정을 보게 되면 祥子は 아큐와는 다른, 자기 나름대로 체면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순박한 농민임을 알 수 있다.

12)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영화〈十七歲的單車〉를 들 수 있다. 중국영화계의 제6세대로 분류되는 王小帥 감독의 작품으로, 〈十七歲的單車〉는 2001년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과 같은 해 전주국제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하였다. 우리나라에는 〈북경자전거〉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十七歲的單車〉 역시 북경으로 일 자리를 찾아 유입된 農民工을 소재로 도시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상자는 북방의 촌구석에서 성장하여, 아무데나 대고 욕설을 퍼부어대는 것은 꺼렸다. 그렇다고 사내대장부가 아녀자와 싸울 수도 없었고, 같이 욕을 할 수도 없어서 노려보기만 할 뿐이었다.<sup>13)</sup>

祥子は 자신의 인력거를 소유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는 농촌에서 자신의 토지(생산수단)를 조금이라도 소유하고 자작농이 되기를 원하는 농민의 간절함이나 다를 바 없다. 祥子は 이와 같은 농민들의 원초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고통도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도시에서 인력거를 갖고자 하는 祥子の 꿈은 농촌에서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바램에 비해 더욱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하였다. 삼년 간의 노력 끝에 祥子は 인력거를 한 대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반년도 채 못 되서 군벌에게 인력거를 빼앗기고 만다. 그는 목숨만 겨우 건져 도망하는 길에 세 마리 駱駝를 얻게 되고 이를 35元에 판다. 그는 이 돈으로 중고 인력거를 사게 되지만 孫형사에게 빼앗기고, 결국 다시 인력거 회사로 돌아온다. 반복되는 좌절 속에서도 그는 억울함을 호소할 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자각은 없다.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잘못했단 말ियो?”

祥子は 울먹이며, 또 다시 침대 언저리에 주저앉았다.

“너야 아무에게도 잘못 안했지. 단지 운이 나쁜 거지! 어느 놈은 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지만, 우리 같은 놈들이야 모두 밀바닥 인생이라고. 지금 이런 얘기 한다고 무슨 소용 있겠나?”<sup>14)</sup>

祥子を 헐박해서 돈을 빼앗아 가는 孫형사 역시 祥子와의 관계에서 착취자의 입장에 있을 뿐 운명론적 삶을 살아가는 민중의 우매함은 마찬가지로

13) 《駱駝祥子》, 《老舍文集》 제3권, p.46: “祥子生在北方的鄉間, 最忌諱隨便罵街. 可是他不敢打張媽, 因爲好漢不和女鬪; 也不願還口. 他只瞪了她一眼.”

14) 《駱駝祥子》, 《老舍文集》 제3권, p.101: “我招誰惹誰了!” 祥子帶着哭音, 說完又坐在床沿上. “你誰也沒招; 就是碰在點兒上了! 人就是得胎里富, 咱們都是底兒上的. 什麼也甯再說了!”

지이다. 祥子和 孫형사 같은 민중은 중국의 역사 속에서 늘 수동적 존재로 살아왔을 뿐이다. 이들은 주체적 역할에 대한 자각 같은 것은 없기에 자신에게 닥친 불행에 대해서도 운명으로 받아들일 뿐,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결국 祥子는 다시 人和인력거회사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재기를 꿈꾸며 돌아온 祥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虎妞와의 결혼이라는 또 다른 비극일 뿐이었다. 그는 비록 그녀의 도움으로 세 번째 인력거를 사게 되지만, 虎妞가 난산으로 죽게 되자 祥子는 인력거를 팔아 그녀의 장례를 치른다. 祥子는 이제부터 점차 도시와의 투쟁 의지를 접기 시작한다. 루쉰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풍자적으로 말하고 있다.

우리(중국인들)에게는 이미 알맞게 부여받은 위치가 있다. 貴賤이 있고, 大小가 있으며, 上下가 있다. 자신이 남에게 능멸을 당하기도 하지만, 남을 능멸하기도 한다. 자신이 남에게 먹히기도 하지만 내가 남을 삼키기도 한다. 계급별로 통제가 엄격해서 꿈쩍도 할 수 없으며,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꿈틀거리기라도 하면, 비록 어떤 이익이 있을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해악이 따른다. 우리는 옛사람의 훌륭한 법도와 미덕을 따르면 될 뿐이다.<sup>15)</sup>

21세기, 새로운 중국이 수립된 지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三農問題는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없으며 몰락한 농촌을 떠나 도시로 들어간 농민들의 삶 역시 달라진 것은 없다. 오히려 농촌의 몰락 → 도시로 유입 → 도시빈민으로 전락이라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는 더욱 구조화되고 공고해졌다고 볼 수 있다. 도시로 들어간 農民工들이 도시의 시민사회에 편입되는 것은 祥子가 인력거를 소유하고자 했던 꿈이 물거품으로 끝나는 것과 다

15) 〈燈下漫筆〉, 《魯迅全集》 제1권, p.215: “但我們自己是早已布置妥帖了, 有貴賤, 有大小, 有上下. 自己被人凌虐, 但也可以凌虐別人; 自己被人吃, 但也可以吃別人. 一級一級的制馭着, 不能動彈, 也不想動彈了. 因爲倘一動彈, 雖或有利, 然而也有弊. 我們且看古人的良法美意罷.”

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치춤 도시의 생태계에 적응하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 그것은 바로 내재되어 있던 야만성의 발현인 것이다. 祥子 는 이제 도시문명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만, 자기배반의 길에 들어설 뿐이다.

체면을 중시하고 굳세고 희망에 차 있었던 祥子, 또한 이기적이며 개인적이고 긴장했던 위대한 祥子가 지금은 얼마나 많이 남의 장례행렬에 일꾼으로 참여했는지 모른다. 언제 어디에서 자신을 물어버리게 될 지도 모른다. 타락하고 이기적이며 불행한 병든 사회 속에 잉태된 개인주의의 末路!<sup>16)</sup>

결국 祥子 는 도시문명에서 소외되고 그 문명에 적대적인 빈민으로 전락하게 된다. 정치경제적으로 촘촘하게 짜여진 도시 생태계의 그물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이를 벗어나고자 할 경우 오히려 그 그물망의 희생물이 되는 작금의 현실은 1930년대 祥子 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文明城市 新北京의 新祥子 들에게도 여전히 진행형인 것이다.

### 3. 新京味の 裏面

三農問題의 심화가 양산해 낸 農民工들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국제도시로 성장한 북경에 대해 중국정부는 문화적 이미지를 채색하는데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이미 2001년 북경올림픽이 결정되던 시점부터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것은 ‘소프트 파워’ 전략의 일환으로 비단 북경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중국정부는 전통문화를 오늘날에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펴는

16) 《駱駝祥子》, 《老舍文集》 제3권, p.228: “體面的, 要強的, 好夢想的, 利己的, 個人的, 健壯的, 偉大的, 祥子, 不知陪着人家送了多少回殯; 不知道何時何地會埋起他自己來, 埋起這墮落的, 自私的, 不幸的, 社會病胎里的產兒, 個人主義的末路鬼!”

것과 동시에 전통문화를 해외에 전파하여 중국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 보편성을 획득하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문화대국을 추구하는 중국은 이러한 국가적 목표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낙후된 분야가 바로 중국의 문화산업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문화산업의 경쟁력이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까지 뒤지는 현실은 문화안보나 종합국력, 그리고 대국으로 부상하는데 따른 국제사회의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sup>17)</sup>

이러한 중국정부의 인식은 북경을 중국의 문화중심지로서 ‘京味’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단초가 되었다. 북경은 중화제국의 수도로서 이미 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도시이며 이는 京味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고도와 현대의 모순으로 외형상 고도北京이면서도 현재 쇠락해가는 고도의 모습이다; 또한 현대적 北京이면서도 곳곳에는 전근대의 유적이 병존한다. 北京은 고전적이면서 현대적이고, 고전적인 현대유적이다. 두 번째로 성장과 쇠퇴의 병존이다. 이미 성장하는 모습을 갖추고 쇠퇴하고 있으며, 성장하는 현대 가운데 쇠퇴하는 고전인 것이다.<sup>18)</sup>

北京은 중국의 정치문화 중심지로서 타 도시에 비해 배타성과 보수성을 견지하였지만 20세기 초부터 서구사조와 외래문물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점차 현대적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北京은 배타성이나 보수성과는 상반되는 정치문화현상, 즉 신문화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17) 이옥연, 《포스트사회주의 시대의 중국문화》, 서강대학교출판부, 2009, p.139.

18) 王一川, 第一重是指故都与现代的悖论, 即它看来是故都北京, 却正在现代衰颓着; 它看来是现代北京, 却处处可见其古典遗存。它既是古典的又是现代的, 是古典的现代遗存。第二重是指生长与衰颓的悖论, 即它既是生长着的又是衰颓着的, 是生长的现代中的古典衰颓。《京味文学第三代》, 北京大学出版社, 2006, pp.6-7.

있었고 백화운동과 문학혁명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시민의식이 빠르게 되었다. 그러나 北京의 변화는 다른 도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서구문화와 전통문화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가 아닌 각각의 특징을 고수하며 변화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上海나 여타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오늘날까지 전통의 흔적을 가장 많이 유지하고 있는 원인이며 京味라는 문화풍격을 지니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둘째,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도시생태 또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 변화는 표면적이었을 뿐, 北京문화를 지탱해 온 근원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매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던 것이다. 이 두 가지 특징은 京味が 북경의 새로운 문화코드로 자리잡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은 오늘날 京味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 역할을 하였고 이를 배경으로 창작활동을 하였던 라오서의 작품들은 이제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부여받기 시작하였다. 중국현대문학 작가 가운데 오늘날 북경의 문화정책과 이처럼 잘 맞는 작가는 아마 드물 것이다. 20세기 초엽 전통과의 단절을 역설하던 많은 작가들의 작품과는 다르게 라오서의 작품 속에는 王府井, 前門, 西單, 東單, 鼓樓大街, 琉璃廠<sup>19)</sup> 등의 전통적인 상업중심지들이 묘사되고 있으며 이 거리들은 이미 문화상품화 되어 버린 고색창연한 ‘中華老字號’<sup>20)</sup>로 가득하다. 그러나 라오서가 만일 오늘날 그의 단편소설 〈老字號〉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老字號가 지니고 있는 인문적 가치들을 전 지구적인 신자유주의 앞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일 것이다. 2,30년대 북경의 거리에

19) 王府井, 前門, 西單, 東單, 鼓樓大街, 琉璃廠 등등, 이는 모두 예부터 북경의 상가밀집지역이다.

20) 중국 전역에 검증된 史料를 가지고 있는 老字號만 해도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全聚德(북경오리고기), 同仁堂(약방), 東來順(샤브샤브), 都一處(식당), 仿膳(식당), 稻香村(식품), 六必居(식품), 瑞蚨祥(비단의류), 盛德福(비단의류), 一得閣(文房四友) 등이 익히 알려진 老字號라고 할 수 있다. 北京의 老字號는 문화의 상품화 열풍과 맞물리면서 그 숫자의 증가와 원조논란을 둘러싼 소송까지 빈번하다. 하지만 老字號는 중국인들의 전통상술과 상업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서 祥子(장미)가 끌던 인력거는 북경 胡同관광의 수단이자 상징이 되어 胡同거리를 누비고 있다.<sup>21)</sup> 박제된 祥子의 삶은 새로운 상품으로 도시의 문화시장에 흡수된 것이다.

개혁과 개방,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는 결국 중국특색의 자본주의의 또 다른 수사에 불과한 것이며 20세기 초엽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전통문화도 새로운 상품가치로 주목받고 지점에서 京味라는 개념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라오서가 북경의 인력거꾼 祥子를 그려내고자 했던 이유는 京味が 목적이 아니었다.

내가 관찰했던 것은 인력거꾼의 차림새에서 풍기는 것이라든지 언행에 대한 소소한 일들 뿐만 아니라, 그들 내면의 마음상태에서 지옥이란 도대체 어떠한 곳인가를 관찰해내는 것이다. 인력거꾼의 외면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모두 생명과 생활상으로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근원을 찾아내야만, 고통받는 사회를 그려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22)</sup>

라오서의 작품은 다른 작가들의 작품과는 다르게 낱낱의 시민형상들을 작가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관계를 설정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도시문화의 특성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라오서가 주목한 도시문화는 낱낱의 시민 관계를 엮어내는 씨줄과 날줄의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생활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독자는 작품을 통해 ‘도시’와 ‘인간’의 생태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경이라는 도시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현실의 공간’을 분석하는 것보다 라오서의 시각을 통해 재구성된 소설 속의 ‘재현의 공간’을 보면서 복잡다단한 ‘현실의 공간’을

21) 북경 胡同관광지역은 현재 南鑼鼓巷 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의 胡同은 이미 관광상품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자전거가 끄는 인력거로 胡同tour를 할 수 있다.

22) 〈我怎樣寫《駱駝祥子》〉, 《老舍文集》 제15권, p.206: “我所要觀察的不儘是車夫的一點點的浮現在衣冠上的, 表現在言語與姿態上的那些小事情了, 而是要由車夫的內心狀態觀察到地獄究竟是什麼樣子. 車夫的外表上的一切, 都必有生活與生命上的根據, 我必須找到這個根源, 才能寫出個勞苦社會.”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sup>23)</sup>

그러나 라오서의 창작에 대한 연구의 초점을 문화에만 국한시킬 때 오히려 그의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를 간과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것은 라오서의 문학을 京味라는 문화상품으로 재해석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협한 오류가 될 수 있다. 《駱駝祥子》를 21세기적 독법으로 읽어낸다 해도 작품이 지니고 있는 북경의 도시 생태계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는 京味라는 상품화된 문화가치를 넘어서 여전히 그 의미는 유효할 것이다.

### Ⅲ. 결 론

이제까지 본 바와 같이 《駱駝祥子》의 사회적 의미란 작품 속에서 소위 도시문명의 병폐와 인성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駱駝祥子》는 도시문명에의 편입을 갈망하던 祥子の 흥망사를 통해서 도시문명이 양산한 비극의 본질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駱駝祥子》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의미인 동시에 예술적 가치일 것이다.

라오서는 《駱駝祥子》를 통해 祥子라는 進城農民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문명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祥子 는 자신에게 밀어닥치는 비극적인 운명과 힘겨운 싸움을 벌였지만 모두 헛된 노력(三起三落)으로 끝나고 만다. 라오서는 과연 이것은 개인적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인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던진다. 라오서는 소설을 통해 도시문명이 어떻게 인성과 충돌하는지 고찰하는 한편 도시문명은 인간의 어떤 면을 부각시키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농민공 祥子를 둘러싼 운명이 바로 문명의 상징인 도시 가운데에서 양산된 것이고, 자본의 논리 가운데 왜곡된 기형적인 인간관계인 것이다. 祥子가 경험했던 인

23) 김경석, 《〈駱駝祥子〉와 〈十七歲的單車〉에 투영된 도시문명》, 《중국어문학논집》 제43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7.

간군상들, 虎妞와 결혼한 후 살았던 大雜院<sup>24)</sup>의 모습, 그가 마지막에 들어간 ‘無底坑’의 기방 등등, 소설은 모두 도시문명 가운데 실재하는 지옥의 다양한 모습들인 것이다. 祥子는 물욕으로 가득한 도시문명에 의해 삼켜버렸고 자신도 결국 문명지옥의 일부분이 되어 버렸다. 《駱駝祥子》는 이처럼 도시문명의 병폐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해부하고 있으며 도시문명이 어떻게 “인간의 내면에 있는 탁함과 야만(人心所藏的汚濁與獸性)”을 끌어내는지 보여주고 있다.

《駱駝祥子》가 탈고된 지 이미 70년, 이미 한 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북경은 지난한 역사의 과정을 거치며 거대도시로 변모해 왔지만 祥子를 시민으로 끌어안지 못하고 내뱉는 도시문명의 역설적 생태계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이 《駱駝祥子》가 21세기의 新北京에 던지는 인문학적 물음일 것이다.

### <References>

- Lao She, 《Laoshe Works》 Vol. 3, Vol. 15, Vol. 16, Renmin Wenxue Publisher, 1995.
- Lu Xun, 《Luxun Works》 Vol. 1, Renmin Wenxue Publisher, 1981.
- Zhao Yuan, 《Peking: Cheng yu Ren》, Press of Peking Normal Univ, 2014.
- Yang Jian Long, 《Laoshe yu Dushi Wenhua》, Press of Guangxi Normal Univ, 2012.
- Chen Ping Yuan Wang De Wei, 《Peking: Dushi Xiangxiang yu Wenhua Huiyi》, Press of Peking Univ, 2005.

24) 大雜院: 북경의 전통주택양식인 四合院이 공동거주지 개념으로 확장된 형태이다. 기본적인 구조는 四合院의 ㄷ자 형태로 四合院과 아파트의 혼합형이라고 볼 수 있다.

- Wang Yi Chuan, 《Jingwei Wenxue Disandai》, Press of Peking Univ, 2006.
- Li Run Xin, Zhou Si Yuan, 《Laoshe Yanjiu Lunwenji》, Renmin Wenxue Publisher, 2000.
- Chen Gui Di, Wu Chun Tao, 《Chinese farmers reportage》, Ghil Publisher, 2014.
- Lee Yook Yeon, 《Post-socialism of Chinese culture》, Press of Sogang University, 2009.
- Gu Dong Hoi, 《City in A Movie》, Hanwool, 1999.
- Kim Kyung Seog, 《〈Luotuo Xiangzi〉 and 〈Beijing Bicycle〉》, 《The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Vol. 43, The Society for Research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2007.
- Kim Kyung Seog, 《Study on Novel with Peking Atmosphere》, 《The Journal of the Research of Chinese Novell》 Vol, 41, The Society for Research of Chinese Novels, 2013.
- Kim Kyung Seog, 《Study of Laoshe's 〈Laozihao〉 and 〈Duanhunqiang〉》, 《The Journal of the Research of Chinese Novell》 Vol, 29, The Society for Research of Chinese Novels, 2009.

### <Abstract >

There Fiction “Luotuo Xiangzi” of Lao She is has a cultural value, such as documentaries about the civil society of Peking 1930. But meantime the evaluation of his work has been concentrated to identify the cultural values. Especially cultural policy with an emphasis on the ‘soft power’ in China was bring about distortions that limit the “Luotuo Xiangzi” phenomenon and the commodification of culture in Lao She

cultural phenomenon called ‘京味(atmosphere of Peking culture/Peking flavor)’. Today ‘Three problem of rural community’ of China and represents the collapse of the rural society, the collapse of the rural communities and farmers have intensified the phenomenon farmhouse entering the city. Fallen peasants flowed into the city has not been incorporated into the civil society, and only reduced to the urban poor. Have “Luotuo Xiangzi” of Lao She was released in 1936, depicting the social implications Peking’30s, but “Luotou Xiangzi” that can have very large implications for the 21st century ‘農民工(laborer that from rural community)” problem in Peking. From this point of view, life in “Luotuo Xiangzi” that will be able to have simply meant that the social and cultural values, rather than stopping to.

Key Words : 駱駝祥子(Luotuo Xiangzi), 京味(Peking flavor), 시민사회 (civil society), 문화적 가치(cultural value), 農民工(laborer that from rural community)